

《장한몽》의 작가 조일재의 생년을 바로잡는다

조일재의 생년은 1863년이 아닌 1887년

최덕교 | 창조사 대표

후일 연극 <이수일과 심순애>로 인구에 회자한 신소설 《장한몽》의 작가 조일재(본명 조중환)의 생년은 각종 사전에 1863년으로 기록돼 있다. 창조사의 최덕교 대표가 이 기록이 잘못됐음을 실증한 글을 기고해왔다. 최대표는 조일재가 《삼천리》에 발표한 글을 근거로 조일재의 생년을 1887년으로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소설사와 연극사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잡지뉴스》 1999년 8월호의 기획연재 <한국잡지 100년 이야기>(제 21회)를 쓰면서, 필자는 1934년 4월 18일자로 발행된 《극예술(劇藝術)》(발행인 박용철(朴龍喆)) 창간호에 실린 윤백남의 <조선연극 운동의 20년을 회고함>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1910년대의 신소설 작가 조일재(趙一齋, 1863~1944, 본명 중환(重桓))와 극작가 윤백남(尹白南, 1888~1954, 본명 교중(教重))의 친숙한 관계가 그려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1년 4월 어느 날 저녁 때, 나는 그 당시 <不如歸(불여귀)>와 <長恨夢(장한몽)> 집필에 열중하고 있는 조일재군을 찾았다. 조군은 지금도 역시 청빈(淸貧)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터이지만, 그때도 똥골(지급의 재동(齋洞))에서 안국동으로 넘어가는 골목막바지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에 칩거(蟄居)해 있어서 청빈을 달게 여기고 <불여귀> 번역에 열중하고 있는 때인데, 내가 멀어도 이틀에 한번은 방문을 하면 번역한 초고를 내 앞에서 한번 읽고 나서, 비평을 청하기도 하고 의견을 징(徵)하기도 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이날은 그런 의미의 방문이 아니었다. 나는 조군의 낮을 보자마자 채 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구경 갑시다.’

‘무슨 구경이 났소?’

‘광고가 바로 굉장합니다. <조선신파(新派)연극원조>란 노보리가 단성사 앞에 죽 늘어섰고 바로 마에게이끼(前景氣)가 그럴듯 합니다.’

‘임성구(林聖九)? 물론 그나 나나 일찍이 듣지 못하던 이름이다.’

‘신파원조 임성구’(新派元祖 林聖九)라고 뚜렷이 소메누끼를 하여 있던데...’

이리하여 조일재군과 나는... 일금 5원을 장만해가지고 곧장 단

성사로 극구경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극장 관람료는 30전이 극상이고 보통 10전, 20전 할 때에 5원이나 만들어가지고 간 데에는 재미스러운 이유가 있었다....(하략)”

여기에 나오는 일본말인 ‘노보리’(襪)는 극장 앞에 즐비하게 세우는 기다란 광고 깃발이고, ‘마에게이끼(前景氣)가 그럴듯하다’는 것은 ‘경기가 좋으리라고 예측해 미리 들떠 있다’는 뜻이고, ‘소메누끼’(染抜)는 빨강·파랑·검정 등으로 천을 물들여서 글자나 그림만 하얗게 드러나게 한 것인데, 주로 행사 때의 장치나 홍보용 광고물로 만들어진다. 이는 모두 당시 극장가에서 쓰이던 말들이다.

조일재와 윤백남의 호칭에서 의문점 발견해

필자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그간 문헌에 기록된 조일재의 생년은 ‘1863년’인데, 윤백남은 ‘1888년’으로 25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윤백남의 글에서 보면 조일재를 ‘군’으로 호칭하며 허물없는 친구로 지낸다. 우리 예속(禮俗)에서는 25년 연장이면 깍듯이 대해야 할 아버지뻘인데, 어떤 경우에서도 군으로 부르며 벗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무렵이 바로 신극(新劇) 초창기의 명배우 임성구(1887~1921)가 신파극단 ‘혁신(革新)단’(1911)을 조직해 등장하던 때다. 그리고 조일재와 윤백남은 극단 ‘문수성’(文秀星)을 만들어, 일본 소설가 도쿠도미(徳富蘆花 1868~1927)의 가정비극소설 <불여귀(不如歸): 두견새>를 번안·각색해 당시 국립극장 원각사(圓覺社)에서 공연(1912. 3. 29)했는데, 이때 조일재도 윤백남도 다 배우로 출연했다. 그때 《매일신보》(1912. 3. 31)에는 <연예계 정황(情況)>이라는 타이틀로 그 관극평을 실었다.(한글맞춤법은 현행대로 고치고 일

본인명은 일본음으로 표기해 그 한 대목을 옮겨 본다.)

“...문수성 일행을 말하면 다년 내지(內地 :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연극을 많이 본 사람들이라, 처음 연극으로는 매우 잘한다 할 만하다. 윤교중(尹敎重)의 가와지마(川島武男)와 정숙(鄭燾)의 지지와(千千岩安彦) 등은 일본 배우도 부럽지 않게 하며, 어린애들도 매우 잘 되었고 조중환(趙重桓)의 가다오카(片岡) 중장(中將)으로 말하면, 그 체격이며 태도가 가히 육군중장이라 할 만하여 매우 잘 되었으나, 그 소리가 좀 낮아서, 관람자에게 잘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결점이라 하겠도다...(하략)”

이처럼 윤백남과 조일재, 윤교중과 조중환은 극단도 함께 하고 연극도 함께 할 정도의 친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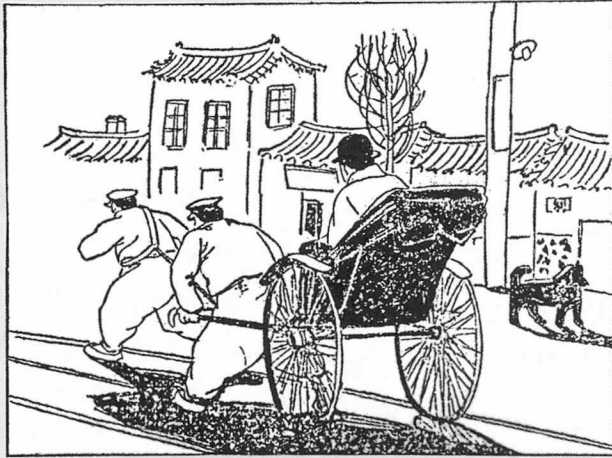
조일재의 회고 원고에서 실마리 찾아

또 《신문백년인물사전》(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88)의 '1915년 《매일신보》 진용'을 보면, 사장 겸 편집인 선우일(鮮于日, 1880~?), 경파(硬派) 주임 조중환, 연파(軟派) 주임 이상협(李相協, 1893~1957)으로 돼 있는데, 조중환이 1863년생이라면 사장인 선우일보다 17세 많고, 이상협과는 30세 차이가 난다. 경파주임은 오늘날의 정치 부장이요, 연파주임은 사회부장에 해당되는 명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세사람은 다 신소설가로서 선후배 사이가 된다.

사장보다 17세나 많은 부장? 그런 인사조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중환과 이상협은 신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친한 사이로, 신극 〈청춘〉을 합작해 윤백남과 조중환이 조직한 극단 '문수성'에서 공연(1914)한 바 있으니, 어느 모로 따져 보아도 30년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변에 있는 문헌과 자료를 어지간히 뒤져봤으나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 조씨 중에 '重'자 항렬의 인물이 많은 양주(楊州) 조씨 대중회를 비롯해, 풍양(豊壤) 조씨, 한양(漢陽) 조씨, 함안(咸安) 조씨에도 '重'자 항렬이 있어 그 증친회에도 알아봤으나 다 헛일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어느 날, 우연하게도 그 해답을 얻게 됐다. 《삼천리(三千里)》 1934년 9월호에 실린 조일재의 〈장한몽 변안회고〉에 조일재 자신이 나이를 밝힌 대목이 있었던 것이다.



〈장한몽〉의 제1회 삽화(《매일신보》, 1913. 5. 13, 왼쪽)과 제5회 삽화(《매일신보》, 1913. 5. 17).



“...생각하면 벌써 옛날 일이다. 내가 명치(明治)문호 오자끼(尾崎紅葉 1867~1903)의 〈곤지끼야샤(金色夜叉)〉를 〈장한몽(長恨夢)〉이란 이름으로 번안하여 낸 것이 기미(己未 : 1919) 전이었으니,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흘렀다. 그때 내 나이 스물일곱살이다...”

이 27세가 바로 정답의 열쇠가 된다. 〈장한몽〉은 1913년 5월 13일부터 그해 10월 1일까지 제119회로 《매일신보》에 연재됐으니, '1913 - 26 = 1887', 즉 그때는 나이를 만으로 하지 않고 '당(當)으로 했으니 '26'을 빼면 '1887년'이 그의 생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윤백남보다는 한살 많고, 이상협과는 6살 차이, 선우일보다는 7살 아래, 임성구와는 동갑이 되니 윤백남과의 친구, 《매일신보》의 인사조직 등이 비로소 납득이 간다.

각종 사전의 오류 바로잡아야

〈장한몽〉은 독자의 절찬을 받고 연재가 끝나는 제119회의 말미에다 “...취미가 진진한 〈장한몽〉 후사는 일후 게재할 〈속편 장한몽〉을 보시오”라고 했다. '속편'은 1915년 5월 25일부터 그해 12월 26일까지 제145회로 《매일신보》에 연재됐고, 다시 '그 속편'이 전작(全作)(?)돼 책으로는 상·중·하 3권으로 나왔으니 그 인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연재가 끝나자마자 그해 11월에는 임성구의 '혁신단'에서 상연했고, 이어 박문(博文)서관, 조선도서(주) 등에서 출판됐으며, 그후에도 연극으로 영화로 오늘날까지 〈이수일과 심순애〉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공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문헌들에는 조일재·조중환의 생년이 모두 '1863년'으로 기재됐고, 표제는 '조일재' 또는 '조중환'으로 했다.

▲《대백과사전》(학원사, 1959) ▲《한국인명대사전》(신구문화사, 1967) ▲《국어국문학사전》(허용·박지홍 엮음, 일지사, 1971) ▲《한국문학대사전》(김동리 외 엮음, 문원각, 1973) ▲《세계문예대사전》(문덕수 편저, 성문각, 1975) ▲《세계대백과사전》(동서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한국브리태니커회사, 동아일보, 1993) ▲《두산 세계대백과사전》(두산동아, 1996) ▲《국어대사전》(김민수 외 엮음, 금성출판사, 1997)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엮음, 두산동아, 1999) ▲《한국인물대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국사대사전》(이홍직, 학원출판공사, 2000) ▲《국어대사전》(이희승, 민중서관, 2001) ▲《한국 신극사(新劇史) 연구》(이두현, 서울대출판부, 1966) ▲《한국 근대연극사》(유민영, 단국대출판부, 1996) (무순)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일 것은, 1959년 학원사판 《대백과사전》은 필자가 편찬 주관한 것인데, '조일재(趙一齋)항'이 '조일재(趙一齊, 1863~1944)'로 오기돼 있고, 소항목이기 때문에 그 집필자며 출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그 출전과 그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좀더 찾아볼 생각이다. ●